

서울 종로구

# ‘호탕한 웃음’ 광고계도 섭렵... 연예계 짠순이 유명

1939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산전수전을 겪은 전원주는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로 3년간 일하던 중 고운 목소리를 강점으로 삼아 성우 공채 시험에 합격해 1960년 CBS 5기로 성우 생활을 시작했다.

1972년 중앙방송(TBC) 탤런트로 특채돼 배우로 전직했다. 연기 인생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데뷔 초기는 순탄치 않아 호감 가지 않는 외모로 가정부를 포함한 단역 위주로 맡았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작고 못생겨서 일을 안 시켰다. 연기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며 “연기자 대기실에서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 한 명 없었다. 혼자 도시락을 싸와 혼자 먹었다. 존댓말도 못 들어봤다. 나한테 반말이었다”고 설움을 털어냈다.

30년간 무명 생활이 서러워 배우를 그만둘 만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운명의 농



촌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만났다. 이 작품에서 사랑스러운 훈수 하성대역으로 역할과 맞는 잘떡궁합의 연기를 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화통한 웃음소리는 곧 전원주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개그프로와 광고까지 섭렵하며 기적처럼 국민배우로 등극했다.

어린 시절부터 잘 웃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웃지 않는 성격으로 우울했다. 잘 웃는다는 의미로 ‘전원보’, 대화할 사람이 없어

혼자 중얼거린다는 의미로 ‘전중얼’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침울한 모습으로 있으니 좋은 일이 생길 리가 만무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한 아줌마가 호탕하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전원주는 웃음소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지로 따라 웃고 집에 가서 연습하면서 방법을 터득했다.

덕분에 하성대 역을 맡아 인기 배우로 발돋움하는 기쁨을 누리 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막 시작될 무렵 또 한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1998년 ‘짱’ 주제가가 나오는 이색적인 국제전화 002 테이퐁 CF에 출연해 대학을 터뜨리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그해 광고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SBS ‘퀵’ ‘토마토’ ‘대박가족’, KBS ‘학교3’, MBC ‘타임머신’ 등 주요 방송사 작품에서 풍부한 연기력을 선보였으며 ‘별들의 고향’을 비롯해 ‘너는 내 운명’

‘흑수선’ ‘저 하늘에도 슬픔이’ ‘황산벌’ ‘어린 신부’ 등 스크린에서도 열연했다.

또 고부 관계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전원주의 토크는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화끈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화제를 일으켰지만 때로는 머느리를 대하는 보수적인 모습과 억척스러운 때문에 오해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원주는 외적 모습과는 다르게 2016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지방에서 불우이웃 돕기 자선 콘서트를 열어 모든 수익금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에게 기부하는 등 선행을 보이는 마음 따뜻한 배우다.

연예계의 대표 짠순이로도 유명하다. 2011년 한 방송에서 성우 시절 1만 원 월급부터 시작해 모은 자산이 30억 원이라고 밝혀 놀라게 했다. 당시 한겨울 추위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실내에서 두꺼



전원주

배우

채널A

운 외투를 입어 견딘다고 말해 짠순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 27일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부동산 부자의 비결을 묻자 전원주는 “여운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놀러 다니지 않았다. 부동산 급매 나오면 연락받아 이대 앞 건물을 샀다. 그게 지금 10배다”라고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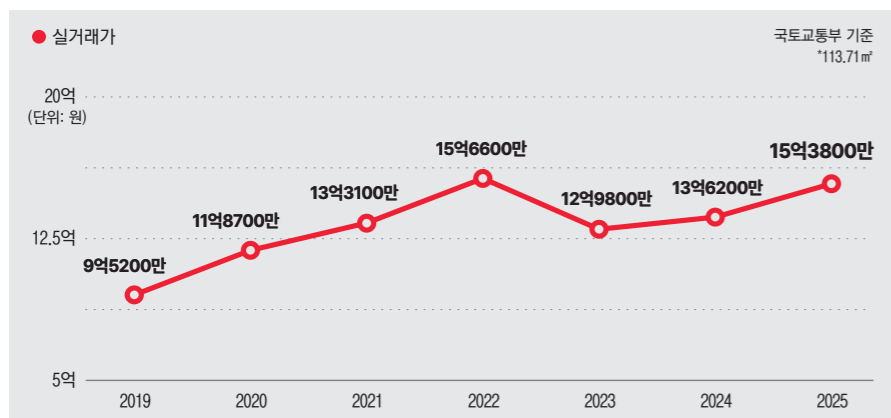
이어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며 “명품을 좋아하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자”라며 “티끌 모아 태산이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행부터 가라”고 조언했다. 약삭같은 성격으로 돈을 모은 전원주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동성빌라(사진) 한 호실을 1998년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전용면적 146.61㎡(약 44.34평) 규모로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매매된 12억5000만 원이다.

동성빌라 주변은 숲세권 인프라를 자랑한다. 북한산으로 둘러싸였고 남측에는 북악산-인왕산-인산과 인접해 조망권과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서울 및 타 지역 이동이 쉬우며 광화문-종로서울시청 등 핵심업무 지구 접근이 쉽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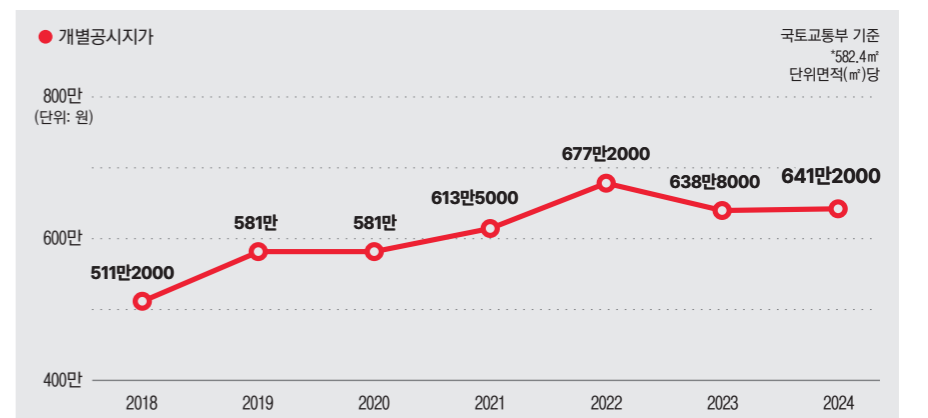
## 경희공자이2단지



## 오보에힐스



## 빌딩



## 양종훈

현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 양종훈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은 제주에서 태어나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 대학원에서 포토저널리즘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사진학회 운영위원·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공보처 한국이미지 초대작가·시카고 중앙일보 기자·경남 고성군 홍보대사·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수입추천소위원·경기영상위원회 영상위원·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상명대 사진학과 부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상명대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한국포토저널리즘학회 회장, 한국사진학회 회장, 상명대 서울·천안 홍보지원 본부장, 김정만알로에 사외이사 등 다방



면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0여 권의 사진집을 발간하고 40여 회의 개인 사진전을 개최한 다 큐멘터리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해녀 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을 맡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세계적인 보물인 제주 해녀를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 최명주

최명주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대구상고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은행 조사2부 행원으로 일하며 국제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계명대 경영대 무역학과 부교수·세계은행 국제금융국 컨설턴트·대구 사회연구소 산업연구부 연구위원·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보스톤컨설팅그룹 금융고문을 거쳐 교보증권 대표이사·GK파트너스 대표이사·포스코기술투자 대표 등을 지냈다. 포스코기술투자에서 다양한 규모의 펀드 결성을 진두지휘하며 벤처기



## 하현희

하현희 전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부산 금성고와 부산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85년 LG금속에 입사해 LG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LG디스플레이 전략기획담당·어플리케이션 사업부장·중소형사업부장·정보기술(IT)사업본부장을 거쳐 LG 시너지팀장, LG그룹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 LG전자 HE 사업본부 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LG 시너지팀장으로서 모바일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솔루션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 그룹 주력사업을 이끌었으며 차세대 성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도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